

사교육 불붙인 ‘학종 → 수능’ 개편... 1.5조 늘어 21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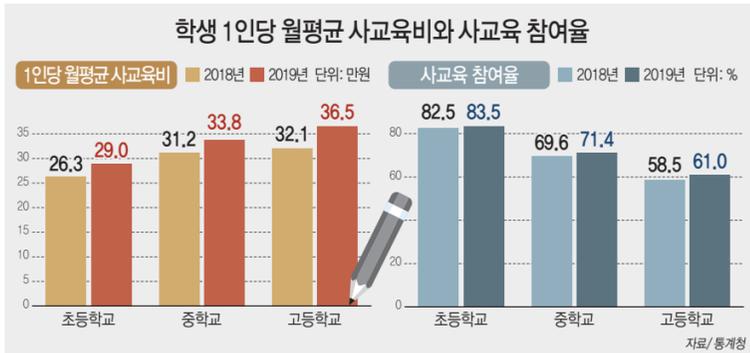
교육부·통계청 사교육비 실태조사

학부모의 불안감 사교육에 영향
사교육 참여율·참여시간 모두 ↑
영어·수학 등 대학입시 과목 지출 커

지난해 국내 초·중·고 사교육비 총액이 전년보다 1조5000억원 큰 폭으로 증가했다. 최근 1~2년 사이 대입 개편과 공정성 강화 방안 등에 따라 대학입시 제도가 크게 바뀐데 따른 학부모들의 불안감이 사교육으로 옮겨갔다는 분석이 나온다.

교육부는 통계청과 공동으로 실시한 2019년 초·중·고 사교육비조사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 결과는 2019년 3~5월과 7~9월에 지출한 사교육비와 관련 교육비를 5~6월과 9~10월에 전국 초·중·고 3002개교 학부모 8만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분석한 것이다.

사교육비는 학교 정규 교육과정 이외 학원, 개인·그룹과외, 방문학습지, 온라인 강좌 등 사적인 필요에 의해 학교 밖에서 받는 보충교육을 위한 개인이 부담하는 비용이다. 국어, 수학, 영어 등은 일반교과와 논술, 예체능, 취미교양, 진



로진학 학습상담 비용 등으로 구분해 조사했다. 다만 방과후학교, EBS교재비, 어학연수비 등은 사교육비에 포함하지 않고 별도 항목으로 조사했다.

조사결과, 2019년 초·중·고 사교육비 총액은 약 21조원으로 전년도 19조5000억원에 비해 무려 1조5000억원(7.8%) 증가했다. 전체 학생수는 전년대비 감소했지만, 사교육 참여율과 주당 참여시간 모두 증가했다.

학교급별로, 초등학생 사교육비 총액은 9조6000억원으로 전년(8.6조원) 대비 1조원(11.8%) 늘어 증가폭과 규모가 가장 컸다. 초등학생 사교육비 총액 증가는 예체능, 취미·교양 사교육 비중이 증가(교과별 총 사교육비 중 41%)했

고, 총 학생 수도 일시적으로 증가(전년대비 1.3% ↑)한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학생 사교육비 총액은 5조3000억원(전년대비 5.2% ↑), 고등학생 6조2000억원(전년대비 4.2% ↑)으로 각각 증가했다. 중·고등학생의 경우 전체 학생수가 각각 3.0%, 8.3% 큰 폭으로 감소했음에도 사교육비 총액은 증가해 중·고교생이 지출하는 1인당 사교육비는 사교육비 총액 조사 결과보다 더 크게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교과목별 사교육비를 보면, 영어와 수학 등 대학 입시에 영향이 큰 주요 교과목의 사교육 지출이 컸다. 또 자율형 사립고(자사고)·특목고 진학을 희망하

는 학생 사교육비 지출이 많았다. 초·중 학생의 진학희망고교 유형별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일반고가 27만8000원인데 비해, 자사고 47만6000원, 과학고·영재고 44만4000원, 외고·국제고 45만2000원으로 높았다.

시도별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와 사교육 참여율 역시 전년 대비 전체적으로 증가했다. 1인당 사교육비 지출은 서울(45만1000원)이 가장 많았고, 전남(18만1000원)이 가장 적어 차이는 약 2.5배로, 시도별 사교육비 지출 격차는 전년(2.2배, 서울 41만1000원, 충남 18만7000원)보다 커졌다.

자녀 수가 적을수록 학생 1인당 사교육비 지출은 증가했고 전년 대비 증가율도 높았다. 자녀 수별 사교육비를 보면, 자녀 1명인 경우 36만1000원으로 전년(32.4만원)보다 11.4% 증가했고, 자녀 2명의 경우 34만1000원으로 전년(30.8만원) 대비 10.8% 증가, 자녀 3명의 경우 24만5000원으로 전년(22.5만원)보다 8.7% 증가했다.

최근 저출산 기조가 지속됨에 따라 1~2명 자녀에게 집중 투자하는 경향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합계출산율은 1997년 1.54명에서 2002년 1.18명, 2007

년 1.26명, 2012년 1.30명, 2018년 0.98명, 2019년 0.92명으로 감소 추세다.

소득 수준에 따른 사교육비 격차도 더 벌어졌다. 월평균 소득 800만원 이상 가구 1인당 월 사교육비는 53만9000원으로 전년(50.5만원)보다 6.6% 증가했고, 소득 200만원 미만 가구는 10만4000원으로 전년(9만9000원) 대비 5.2% 늘었다. 사교육 참여율 역시 85.1%와 47.0%로 격차가 벌어졌다.

이처럼 대학 입시에서 주요 지표로 활용되는 주요 교과 사교육비 위주로 크게 증가하면서 교육부가 최근 1~2년 사이 잇따라 내놓은 2022학년도 대입개편과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방안 등이 영향을 준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4년제 대학 입학처장 협의체인 전국 대학입학관련처장협의회는 지난 2월 성명을 내고 “수능 위주 전형이 사교육비를 증가시키고 교육 불평등을 심화시킨다는 각종 분석 자료를 외면하고 오히려 정시를 확대했다”고 비판했고 “서울소재 16개 대학 대상 정시 40% 이상 확대할 경우 지방대학들부터 신입생 모집에 타격을 받고 교육 불평등 문제가 더 심화될 것”이라고 성토했었다.

/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세종대 건설환경공학과, QS세계대학평가 국내 7위

“국가 발전 이끌 전문인력 양성 할 것”

교수진·개발 연구력 등 평가
지반·도로·환경 등 연구추진



세종대 전경

세종대학교는 건설환경공학과가 영국 글로벌 대학평가 기관인 QS가 발표한 ‘2020 QS 세계대학평가 분야별 순위’에서 국내 7위, 세계 151~200위를 기록했다고 10일 밝혔다.

2020 QS 학과별 순위 평가는 4개 평가 지표로 ▲학계 평가 ▲졸업생 평판도 ▲논문 당 인용도 ▲H인덱스를 활용했다. ‘학계 평가’의 경우 전 세계 학자 약 9만 5000명 이상이 참여했으며 ‘졸업생 평판도’는 전 세계 기업의 인사 담당자 4만

5000여 명에게 ‘우수한 성과를 내는 인력의 출신대학/학과’를 물어 산출했다.

토목·구조공학 분야 국내 대학 순위는 KAIST, 서울대, 한양대, 고려대, 연세대, 성균관대에 이어 세종대가 7위다.

세종대 건설환경공학과는 수학, 물리학 및 화학 등과 같은 기초과학을 바탕으로 구조공학, 수공학, 지반공학 및 환경공학 등의 분야를 다룬다. 이론과 실습 교육을 통해 미래의 문명과 국가의 발전에 보탬이 되는 창조적이고 능동적인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목표다.

이번 2020 QS 세계대학평가 학과별 순위 평가 결과는 교수진, 신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력에 따른 것이다. 건설환경공학과는 구조분야와 수공학분야, 지반 및 도로분야, 환경분야를 연구하는 여러 연구실을 보유하고 있다.

/한용수 기자

인하대, 교내 임대매장 임대료 50% 감면

임대 매장 찾아 다른 지원방법 등 논의
인하대가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한다.

인하대(총장 조명우)는 코로나19로 개강이 연기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내 임대매장의 이달 임대료를 50% 감면하고 고통을 나눈다고 10일 밝혔다.

현재 교내 입점 업체는 서점, 편의점, 안경점, 카페 등 10곳이다. 코로나19로 학생들의 이동이 크게 줄어든 데다 방학 중 교내 행사가 모두 취소되고 개강도 두 차례 연기되면서 교내 입점

상인들의 한숨도 깊어가고 있다. 매출은 지난해 대비 50% 이상 줄었다.

임대료 감면은 우선 이달만 진행한다. 학교 담당자들이 이번 주 임대매장을 찾아 매출 감소 외 다른 어려움이 있는지 살펴 지원 방법 등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조명우 총장은 “임대매장을 운영하는 이들도 모두 학교 구성원이기에 그들의 어려움을 듣고 함께 어려움을 나누고자 한다”며 “힘든 시기이지만 모두 힘을 모아 이 계절을 무사히 견뎌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lhi@

동국대

2주간 원격수업 시행

동국대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개강 후 2주간 실시간 원격수업을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동국대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개강을 2주간 연기한데 이어(3월1일~3월16일), 확산세가 꺾이지 않자 오는 3월16일 개강 후부터 3월28일까지 원격수업을 진행키로 결정했다.

동국대는 교수자와 학습자가 동시에 접속해 실시간으로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프로그램(Webex)을 도입해 수업의 질을 보장하고자 했다.

모든 강의를 대상으로 실시간 원격수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주요 사항 및 매뉴얼 등은 전용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되고 있다.

/한용수 기자

삼육대

교수협의회 유튜브 중계

삼육대가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교수협의회를 유튜브 생중계로 진행했다.

10일 삼육대에 따르면, 당초 2월24~25일 전임교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1학기 개강 준비를 위한 교수협의회를 교내에서 열 예정이었으나, 대면 접촉 최소화 등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9일 오전 유튜브 생중계로 대체했다.

이날 생중계는 김일목 총장과 김남정 부총장을 비롯해 각 부처장 등 최소 인원만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교목처 사업 발표를 시작으로, 김일목 총장의 장학방침, 기획처, 연구산학처, 교무처, 학생처, 대학일자리본부가 3주기 대학기본역량 진단평가에 대비한 부처별 사업 계획을 발표했다.

/한용수 기자

이진숙, 취임행사 간소화... “코로나 극복이 우선”

(충남대 총장)

월요정책회의 열고 취임행사 대체



이진숙 충남대학교 제19대 총장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국가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심각)를 고려해 취임 행사를 간소화하고 코로나19로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료진을 격려했다. /충남대

이진숙 충남대학교 제19대 총장이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국가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심각)를 고려해 취임 행사를 간소화하고 코로나19로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료진을 격려했다.

10일 충남대에 따르면 이진숙 총장은 9일 오전 9시 30분 대학본부 별관 1층 CNU Hall에서 열린 ‘월요정책회의’를 열고 취임 행사를 대신했다.

월요정책회의에는 이진숙 총장을 비롯해 충남대 주요 보직자 50여명이 참석했다. 이진숙 총장의 취임 인사와 꽃다발 증정, 축하케이크 커팅 등 간단한

프로그램으로 취임 행사를 대신했다.

이진숙 총장은 취임 인사를 통해 “거창한 취임식보다는 조용히 집무를 시작하고 성과로 보여드리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취임 행사를 대신해 업무의 현장인 월요정책회의를 통해 구성원에게

취임 인사를 드려 기쁘다”고 말했다.

이날 취임 행사에 이어 이진숙 총장은 국가 지정 입원치료 병상인 충남대학교병원을 방문해 헌신적으로 지역 주민들의 건강을 지키고 있는 충남대병원 의료진을 격려했다.

/이현진 기자